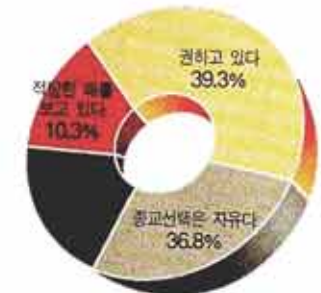


우리나라 경제가 IMF 체제에 편입된 이후 가장 기본적인 도량인 가정마저 흔들리고 있다. 가정이 흔들리지 못하면 사회는 물론 국가의 위기로 이어진다. 다행히 불교는 위기의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내고 있다. 특히 가정법회는 가족 모두가 불교사의 가르침을 공동된 귀의처로 삼아 가족화합은 물론 위기극복의 에너지원이 된다. 본지가 창간 4주년기념 특집으로 기획한 '가정법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모든 응답자들이 불교를 믿음으로써 가정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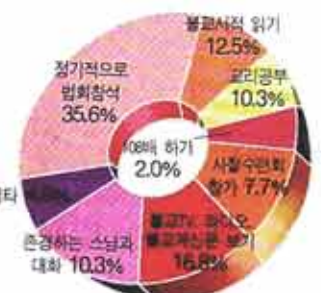
“가족불자화로 화목한 가정 만들자”

불자들은 가정화목(41.0%)과 어려움을 극복(31.1%)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부부화합과 자녀교육에 보탬이 된다는 불자들도 각각 13.5%, 11.4%로 나타났다. 또 87.5%에 이르는 불자들은 불자가정임을 알게 하는 불교용품이나 법구를 가정에 장엄하고 있어 불교가 가정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많은 불자들이 불교를 삶의 좌표로서뿐만 아니라 IMF 극복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가족구성원 모두가 정기적으로 가정법회를 봉행하면 가족 간의 대화부재는 물론 실직, 실업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더욱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불교 믿음 가정생활에 큰 도움
“가정화목” 41% “어려움 극복” 31.4%



초청(16.2%)하거나 법회 때 보시금을 만든다는 가정도 44.1%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가정법회를 봉행하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찰법회에 참석하는 비율이 48.9%로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31.5%) 높아 전제적인 신행면에서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가정법회를 봉행하지 않는 불자들중 53.0%가 그 이유를 짚어 가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지만, 23.3%의 응답자들은 가정법회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답해 가정법회에 대한 중단과 사찰, 신행단체의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층단에서 발생하는 의식집에는 일일 예배 및 가정 기도 등을 실행하고 있으나, 가족법의 봉행을 권유하는 일에는 소극적이다.

아울러 불자들의 가족불자화에 대한 소극성도 가정법회 미실현화의 이유로 꼽힌다. 가족구성원중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가정법회를 봉행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5.2%나 되지만, 불자들은 불교를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한 전법과 관련해 종교선택은 자유라고 생각한다거나



그림 · 박구원

(36.8%) 적당할 때를 보아서 전법할 생각(10.3%)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불교귀의를 권하고 있다는 불자는 39.3%에 머물렀다. 가족중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도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불자들이 55.8%에 이르러 가족불자화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불자가정임을 알게 하는 불교상징물을 집안에 장엄하는 불자가 30%에 가깝고, 가정법회는 봉행하지 않지만 가족이 함께 수행을 하는 가정도 절반을 넘어 가족불자화에 대한 소극성 탈피 가능성도 함께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족수행의 방법은 10배 할하기(12.8%), 참선(10.8%), 독경(10.5%), 열불주려(10.0%)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족불자화를 위해 35.6%의 불자들이 정기법의 함께 참학을 같이 불교의식을 직접 경험하는 방법을 택했다. 다음으로는 불교TV, 라디오, 교계신문 이용을 선호했다. 이는 이들 매체가 갖고 있는 흡인력을 자연스럽게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매체포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불교서적 읽기, 존경하는 스님의 대화, 교리공부도 중요한 전법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경제가 IMF체제



불자가정 10곳중 2곳만 가정법회
“대화부재-불안극복 더없는 처방”

에 편입되기 이전과 비교해 줄어 가는 횟수는 큰 변동이 없었다. 거의 차이가 없다(74.6%)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줄었다(9.4%)보다 더 자주 간다는 불자들이 13.4%로 약간 늘었다. 외부 환경 변화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줄어 가는 횟수가 줄었거나 아예 가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의 여유가 줄어서(66.7%), 시주금이 부실해서(33.3%)라고 응답했다. 특히 할에 가는 횟수가 줄어든 연령층이 40대로 나타나 IMF에 따른 하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세대가 40대임을 짐작케 해준다.

불자 10명중 1명은 종교가 다른 가족과 간혹 대화중 어색함을 느끼거나(11.7%), 다름에 이르는 경우를 경감(2.0%)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교로 인한 가족내 불화가 아직은 적은 수치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는 9월 1일부터 15일 동안 서울·경기지역 사찰에 다니는 불자들과 불교단체 활동을 하는 불자 351명(유효설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내용 22면) 정성준 기자 swjung@buddhapa.com



4

현대불교신문 창간 4주년을 축하합니다.

날마다 오시는 부처님, 현대불교에서 만나세요

gwa

(주) 건화종합건축사무소
GUN WHA ARCHITEXT & GROUP CO., LTD

종합 건축설계 / 종합 감리전문 / 마스터플랜 / 엔지니어링 / 시뮬레이션 및 애니메이션 / 구조물 안전진단

02)3443-7851 ~ 5 / 02)555-1567 ~ 8

ARi

아리종합건축·건설

건축 시공 / 견적 / 유지 관리 / 강구조(P.E.B)

02)3443-7891 ~ 3 / 02)555-1567 ~ 8

ARI

아리건영(주)

주택 건설사업 / 사업성 검토 / 부동산 컨설팅 / 인테리어 / 건축자재 무역업

02)3443-5155 ~ 6 / 02)555-1567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8-9(정석빌딩3층) 대표이사 김기상